

전남도,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자체안 마련'

국방부안, 이전지역 지원 규정 없어...단체장 사전 협의 등 6개 항목 이주 대책·생계 지원 등 국가 지원 명시해 국방부에 공식 건의키로

전남도가 최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가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 자체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2023년 4월 25일 공포·8월 26일 시행)됨에 따

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된 국방부안은 목적 조항 1개, 초과사업비 관련 조항 4개, 종전부지(광주) 개발 관련 조항 4개, 지역 기업 우대 조항 1개로 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규정은 전무하다.

이에 전남도는 이전지역 지원계획 및 관련 절차 등을 담은 자체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국방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전남도가 마련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과의 사전 협의 ▲이전사업과 지원사업 등 재정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 등의 의견수렴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3회 이상 실시 ▲지원사업의 우선 시행과 지원금 조기 사용 등 6가지다.

특히, 국방부장관이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

기로 규정돼 있으나 국방부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군수로 한정하는 법령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광역자치단체장도 포함하도록 하는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더 나아가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으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생계지원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별도 손실보상 및 지원대책 ▲광주시, 전남도 내 주요 도시로부터 군 공항까지 이르는 도로·철도, 항만시설 등 교통망 확충 ▲군 공항과 연계된 이주단지 등 신도시 및 배후 산업단지 조성 등 관련 기반시설 건설 등을 규정하

고 있다.

이는 국방부장관과 사업 시행자에게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주대책 등 지원 사업을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군 공항이라는 기피시설을 수용한 지역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국방부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실무적 협의를 하고, 국방부 관계기관 의견 제출인 6월 1일까지 법리 검토와 세부 규정을 다듬어 국방부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의료기관 의료관광 활성화 협력

의료기관 간담회...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방안 논의

광주시와 지역 의료기관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광주시는 지난 24일 시청에서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등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17곳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계획을 소개하고, 조선대병원과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사례를 발표했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의견도 교환했다.

조선대병원은 사이버 공간에 메타버스를 구축해 국내외 외국인환자의 접근성 문제를 보완하고 국제진료센터와 중증클리닉 등 의료관광 별도의 전문인력과 조직을 운영 중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지역특화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 등 국비 사업을 활발하게 펼친 덕분에 방문 외국인 환자수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건강검진에 대한 수요가 많은 몽골을 타깃국가로 선정하고 몽

골국영은행, 몽골젊은의사회,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가 참여하는 '건강검진을 위한 맞춤형 적금상품'을 공동 개발했으며, 광주에서 건강검진과 의료관광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돕고 있다.

또 몽골 정부 의료보험 검진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몽골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의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특화건강검진 상품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도 힘을 보탠다. 몽골 의료관광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7월 몽골나담축제, 9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10월에는 버스킹월드컵 등 광주에서 열리는 국제 이벤트와 몽골에서 열리는 한국의료관광대전 등을 활용해 의료관광객을 확대·유치할 계획이다.

오동교 광주시 산업혁신과장은 "장기간 침체했던 의료관광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체의 현장 목소리를 주기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 반도체 인재 키우겠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정성택 전남대 총장 등 참석자들이 25일 오전 전남대 스토리움에서 열린 광주·전남 반도체 인력양성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광주시 '창업 혁신기술 테스트베드' 변신

창업기업 기술력 실증·판로 지원...다음달 5일까지 신청

광주시가 창업기업의 혁신기술을 실증하는 테스트베드로 변신한다.

광주시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창업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도 실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 전역을 실증공간으로 개방하고 혁신제품과 서비스를 현장(테스트베드)에 적용해 사용자 반응과 시장 적용 가능성 등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은 현장실증형과 공공구매형 등 2개 유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현장실증형은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이면서 상용화 직전의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기업이 대상이다. 실증하고자 하는 혁신

기술과 관련된 실증과제와 장소를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과제별 최대 2억원의 실증비용을 지원하고, 기업이 희망할 경우 지역 공공기관 시설물 등을 활용한 실증장소도 제공한다.

단, 지방비 지원액의 10% 이상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기업은 6개월간 실증기간을 거친 후 최종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광주시 시장 명의의 국·영문 실증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최우수기업에는 판로 확대, 투자 연계는 물론 최대 2000만원의 후속 지원도 할 계획이다.

실증을 마친 제품을 대상으로 공공구매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한 후속 지원도 진행한다. 현장실증형, 공공구매형 2가지 유형 모두 6월 5일 오후 5시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와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전남 물김 생산액 360억

수출 호조에 전년보다 9%↑

전남산 물김의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수출 호조로 생산액은 늘어났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3년산 물김 39만t을 생산, 위판액 444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생산량은 4만 t(10%) 줄어든 반면 생산액은 360억원(9%) 증가한 규모다.

생산액이 증가한 주원인은 일본·중국 등 김 양식 작황 부진으로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케이(K)-푸드 열풍으로 우리나라 김 수출이 증가한데다, 김 육상채묘 시설, 우량 종자 보급사업 등을 추진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김 생산 초기 영양염류 부족, 황백화 발생 등으로 작황이 부진해 지난해보다 생산량은 다소 줄었으나 재고 소진, 수출 증가 등으로 물김 가격이 높게 형성돼 김 양식여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9% 증가한 1억53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도심 속 습지서 신비로운 생태 체험

광주시, 26·27일 장록습지 탐사캠프...학생 등 150명 모집

광주시는 “26-27일 이틀간 도심 첫 국가습지인 장록습지에서 '제3회 2023 장록국가습지 생물다양성 탐사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세 번째 진행되는 생물다양성 탐사는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해 학생 참가자가 생태 전문가와 함께 우리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을 찾아 관찰 기록하는 생태 체험학습 과학 참여 활동이다.

탐사활동은 장록습지의 다양한 생명을 관찰하고 기록하기 위해 전문가 30명과 초·중·고등학생, 학부모 등 참가자 150명을 모집해 진행한다. 참가자는 식물, 곤충, 조류, 어류, 양서·파충·포유류 등 7개 분류군별로 팀을 구성해 탐사활동을 펼친다.

26일은 맑은 빛을 쫓아오는 곤충들을 채집하기

위해 야간탐사를 진행하며, 27일에는 7개 분류군별로 전문가와 학생 참가자들이 장록습지 일대를 탐사하며 생물종 목록 및 생태지도를 작성한다.

전문가와 참가자가 함께하는 생물다양성 이야기 마당과 생물종 목록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사)순해설가광주전남협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062-223-3279)로 문의하면 된다. 조사된 생물종 목록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송진남 광주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시민과 학생들이 장록습지에서 생물다양성을 체험하며 생태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